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 NEARNews

2009년 7월~8월 / 제28호



#### 특별기고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소식

#### 기회취지

산똥성 제1회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푸른 땅, 푸른 경제 - 아름다운 산똥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NEAR 회원단체소개

몽골 우부르항가이

#### **Special Contribution**

Asia, Keeping Company with Each Other on the Road to Co-prosperity

#### **NEAR This Month**

NEAR Activities I Secretariat News I NEAR Member News

#### **Feature Report**

The 1st NEAR Sub-Committee on Ocean and Fishery

Blue Land and Blue Economy - Welcome to the Beautiful Province of Shandong!

#### **NEAR Member Tour**

Uvurkhangai province,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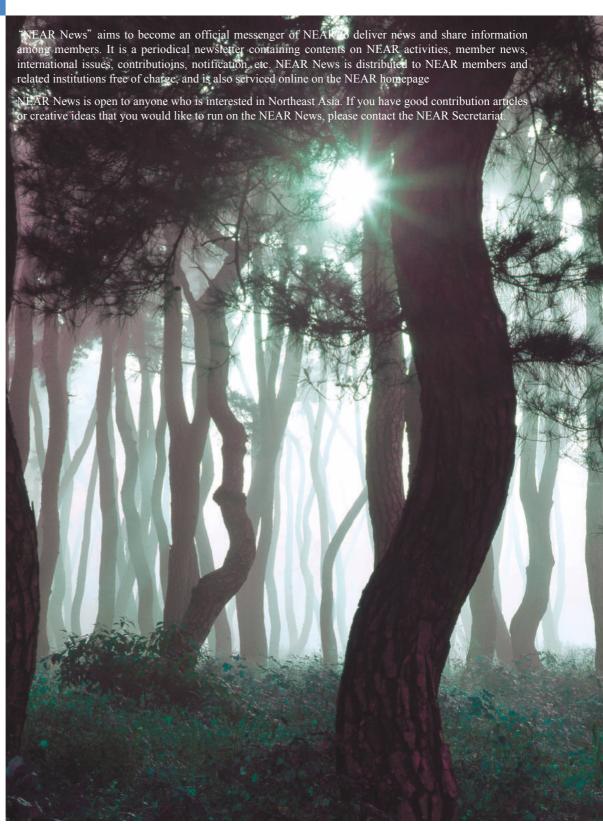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 단체 동정, 관련 국제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NEAR** News



**안개낀 삼릉숲** \_ 경주 Foggy Samreung Forest, Gyeongju City, Korea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NEAR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해양·어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몽골의 참여. 신규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으로

현재 6개국 69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연합총회를 거쳐 언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NEAR**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unded by 29 government from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etc., in September 1996 in Gyeongju, South Korea. NEAR has adopted the Charter based on the ideology of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carried out extensiv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economy and trade, education & cultural exchanges,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cross-border cooperation, science & technology, ocean & fisheries to tourism.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and Mongolia and accession of new member governments, NEAR is growing as a representative regional diplomacy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with 69 member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 NEAR is open to all.

Any local government locat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haring the founding purpose of NEAR can join us through the NEAR General Assembly.

# 아시아공동번영을 위한 이름다운 동행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박 7일 동안 태국, 중국, 몽골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번 방문에서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문화, 의식, 농업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국제교류 증진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첫 방문국인 태국에서는 문화엑스포를 통한 '문화동행'의 물꼬를 열고 21세기 문화의 신 실크로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었다. 티라 슬루페치 문화부 장관과 내년 10월에 열릴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MOU를 체결하고 아피싯 총리를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06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이어 경북이 준비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북의 대표적 글로벌 문화브랜드이다. 경상북도는 이 행사를 한ㆍ아세안 문화교류의 시범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태국정부가 이 행사를 위해 왕실의 상징인 사남루앙 광장을 행사장으로 내어준 것은 이 행사에 대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중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의식 동행'의 싹을 틔웠다. 중국 방문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지도자를 배출해낸 칭화대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칭화대가 초청한 특강인사들은 국가 원수급의 인물들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에웨이허 부총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강을 한 첫 사례라면서 '새마을운동의 현장에 있는 지사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고 싶어 강연을 요청했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새마을운동이 UN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의 하나인 중국으로 전수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강연을 통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의미와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칭화대 학생들은 지금 한국에선 집단 이기주의, 분열,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의 해결방안으로서 '의식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본인의 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에웨이허 부총장도 미래 중국이 겪어야 할 의식의 선진화 문제를 미리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오는 9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에 꼭 참가해서 새마을운동 역사의 산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몽골에서는 '녹색농업의 동행'을 통한 양국의 협력관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몽골에서는 바담조네 농업경 공업부 장관과 농업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몽골정부의 국회의원, 장관, 감사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 북-몽골 농업개발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몽골의 광활한 땅과 경북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는 현장이 되고 향후한국, 몽골뿐만 아니라 식량 걱정 없는 동북아를 만드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북이 꿈꾸는 지방외교의 방향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동행이고, 의식의 동행이고, 녹색농업의 동행이다. 경상북도는 이미 아시아의 신 실크로드의 구축을 위해 동북아시아 6개 국가 69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의 사무국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유치하여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의 방문은 개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해 감으로써 인류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우리가 띄워 보낸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 아시아 공동번영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다.

# Asia, Keeping Company with Each Other on the Road to Co-prosperity

Kim Kwan Yong
Governor of Gyeongsangbuk-do Province, Korea

Recently I visited the three Asian countries, namely Thailand, China and Mongolia for seven days from late June through early July during which I had chances to talk to various people from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university students. By establishing a new framework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 in the fields of culture, spirit and agriculture, this trip has made me more confident of the potential of vibrant international exchange led by regional governments.

My first stay was in Thailand where I foresaw the possibility of opening up a new cultural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when Gyeongsangbuk-do (Gyeongbuk) and Thailand agreed to keep "cultural" company together. I signed an MOU with Thai Minister of Culture Teera Slukpetch on the Bangkok -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0 to be held in October next year and met with Prime Minister Abhisit Vejjajiva who promised governmental support. Along with the Angkor-Gyeongju World Culture Expo held back in 2006, the 2010 event of its kind in Bangkok is one of Gyeongbuk's flagship culture brands which can be enjoy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Our province intends to make this event into a pilot model for Korea-Asia cultural exchange. The Thai Government gave permission to use the Sanam Luang public square or "the royal cremation ground," which was an expression of its keen interest in and firm commitment to the event.

In China, my next destination, the first step was taken in keeping "spiritual company" with China. I was invited by Tsinghua University, which many national leaders attended including President Hu Jintao, to give a special lecture on the Saemaul movement.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head of a regional government ever gave a special lecture in our university. We wanted to listen directly from a person who is at the forefront of spreading the spirit and practice of the movement," said Vice President Xie Weihuo attaching special meaning to this occasion. I found it very meaningful to pass on the spirit of the Saemaul Undong or New Village movement, a social reform launch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through which we also join hands with UN to eradicate poverty in Africa, to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This visit also gave me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 of Saemaul as a global movement. Tsinghua university students crowding the lecture hall were especially interested, when I said Korea is trying to "green" people's spirit as solution to negative social factors such as collective egoism, disintegration and social confrontations. Vice President Xie Weihuo commented, it provided a good chance to reflect upon the necessity of keeping "spiritual development" along with economic growth, a task China would face in the future, and expressed his strong will to join the Korea Samaul Expo to be held in September in Gumi City, Korea.

Lastly, I visited Mongolia to strengthen a cooperative partnership by keeping "agricultural company" with the country. I signed an agricultural exchange agreement with Minister T. Badamjunai.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and join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Gyeongbuk-Mongolia Agriculture Development Center," which was attended by parliament members, ministers and many othe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leaders. I believe this center will provide a platform where Mongolia's vast land meets the capital and technology of Gyeongbuk and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s a prosperous Korea, Mongolia and Northeast Asia without any food problems.

Gyeongbuk pursues diplomacy of "walking together," which is the essence of our cultural, spiritual and agricultural partnership. Also, in line with this vision,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membership of 69 regional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has been headquartered in Pohang City of our province since 2005 to build a new Silk Road in Asia and contribute to realizing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This trip reconfirmed my belief that our walk to co-prosperity can become a more beautiful experience by states and regional governments actively joining hand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each other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 hope that the seed of hope we sowed this time will root and grow into a beautiful tree to bear ripe and candied fruits of Asian co-prosperity.

#### NEAR 활동 Near Activities

#### 제9회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2009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오크스 카날파크 호텔 토야마(Oarks Canal Park Hotel Toyama)에서 제9회 환경분과위원회 및 2009년도 황사의 가시거리 조사에 관한 연수회가 회원 자치단체와 NEAR 사무국, 일본 환경성 관계자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자치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 제안프로젝트 사업의 실시 결과 및 진척 상황을 보고했으며, 기타 환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동북아 지역의 환경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환경분과위원회의 차기 코디네이터는 토야마현의 연임으로 결정되었다.



#### The 9th Sub-Committee on Environment

The 9th Sub-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he 2009 Workshop on Visibility Survey of Dust and Sandstorm was successfully held on 8-9 July in Oarks Canal Park Hotel Toyama, Japan, attended by 31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NEAR members, the Secretariat and the Japanese Environment Ministry. The gathering discussed outcomes and progresses of individual projec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members of the Environmental Sub-Committee and agreed to share useful inform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region among members and take practical measures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lso, Toyama Prefecture was reelected as the coordinator of the Sub-Committee for an extended term of two years.

제9회 환경분과위원회 The 9<sup>th</sup> Sub-Committee on Environment

# 시마네현에서 NEAR회원단체 청년들 한 자리에 - "2009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2009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 시마네'사업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청년과수행원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를 포함,아이가모(Aigamo) 농법,이토(Ito,伊藤) 목장의 낙농식품과 카라코로 (Karakoro) 공방(工房)의 일본과자 손수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수경재배농원,아다치(adachi, 足立) 미술관,야스기부시(Yasugibushi,安來節)연예관 등을 시찰했다.이번 동북아 교류의 날개 행사에서는 특히 의견교환회를 통해 일본 문화뿐 아니라 각 지역에 대한 상호이해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홈스테이에 참가한 시마네현민의 적극적 호응이 돋보였던행사였다.



이토 목장의 버터만들기 체험 Butter making experience at Ito ranch

# **Young Adults from NEAR Members Gathered in Shimane Prefecture**

"The 2009 Northeast Asia Wings of Exchange in Shimane" was held on 30 July-4 August in Shimane Prefectural Assembly Hall, participated by 29 young adults from China, Japan, Korea and Russia. As one of the projects of the Sub-Committee o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it provided youth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Aigamo Agricultural Method, a method of pest control and fertilization and to make dairy foods at Ito ranch and Japanese traditional cakes at Karakoro Bakery. Also, youth delegations from four countries visited hydroponic farms, the Adachi Museum and the Yasugibushi Theater. Finishing the schedule, a wrap-up open discussion enabled students to widen their viewpoints and understanding not only on Japanese, but also on one another's cultures by sharing their opinions and feelings. What made this event more remarkable was high participation by Shimane Prefectural residents in providing homestay for their international guests.



시마네현의 전통 춤 야스기부시 Shimane's traditional dance "Yasugibushi"

## 2009 제7회 NEAR 실무위원회 및 제2회 과학기술분과 위원회 경기도에서 개최

NEAR 의장단체이자 과학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인 경기도가 오는 9월 22일~25일 경기도 수원에서 NEAR 실무위원회와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동시 개최한다. 지난 1년간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점검하며, 각 자치단체의 국제화 시책 성공 사례를 공유, 자치단체의 투자 및 행사 홍보를 하는 등 동북아 5개국 자치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우정의 장을 제공할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특히 회원자치단체간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경기도 벤처박람회인 2009 G-Fair의 참관 및 2010 G-Fair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아울러 금번 제2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인류의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 기술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동북아 지역 바이오 산업의 인적자원, 최신 기술동향 및 정보의 교류를 도모한다.

#### The 7<sup>th</sup> NEAR Working Committee and the 2<sup>nd</sup> Sub-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be held in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Gyeonggi-do Province, the Chair Province and Coordinator of the Sub-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host the 7th NEAR Working Committee and the 2th Sub-Committee on Science & Technology from September 22 to 25 in Suwon City, Gyeonggi-do. This Working Committee is expec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reviewing Sub-Committee activities for the year 2009, sharing best practices in dealing with globalization and publicizing information o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international events among NEAR members. In particular, attendees will also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visit "G-Fair 2009," a technology festival where best venture companies from Korea and abroad will showcase their key technologies, and participate in the 2010 G-Fair promotion meeting to promote practical econom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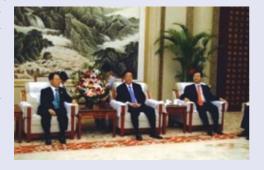
Meanwhile, ushering in the era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the 2<sup>nd</sup> Sub-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rovide good opportunity for exchanging information on Northeast Asian human resources and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bio industry under the theme, "Promoting Bio Technology" as a new vision of human future.

#### 사무국 소식 Secretariat NEWS

#### NEAR 사무국 이해두 사무총장 허난성 방문

NEAR 사무국 이해두 사무총장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표단을 이끌고 허난성을 방문. 허난성 꾸어 껑마오 성장과 쏭 쉬엔타오 부성장 및

외사판공실과 여유 국 관계자를 만나 8월 27일부터 31일 까지 허난성에서 열리는 관광분과위 원회 창설회의 준 비과정과 동북아의 관광산업 발전에 관해서 논의했다.



#### **Secretary General Lee Visited Henan Province**

Secretariat delegates led by Secretary General Lee visited Henan Province, China on 16-18 June to meet with Governor Guo Gengmao, Vice Governor Song Xuantao and senior officials of Foreign Affairs Office and Tourism Administ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auguration meeting of the Sub-Committee on Tourism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east Asian tourism industry.

왼쪽부터 이해두 사무총장, 허난성 꾸어 껑마오 성장, 쏭 쉬엔타오 부성장 (from left) Secretary General Lee, Governor Guo Gengmao and Vice Governor Song Xuantao

#### 사무국 대표단 신규분과위 논의 위해 몽골방문

NEAR사무국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시원 국제협력과 장 등 4명이 몽골 회원단체(우부르항가이 아이막 등)를 방문하였다. 먼저울란바타르시에서 사랑토 도르노드아이막 여성협회회장과 NEAR교류협력증진 및 여성분과위원회 신규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어 우부르항가이아이막 하린허린시에서 바트자르갈 아이막 부지사를 방문, NEAR의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Secretariat Delegation Visited Mongolia to Discuss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Sub-Committee**

Four Secretariat delegates led by Director LEE Shi Won officially visited NEAR members in Mongolia from 23-26 June. After meeting with President Sarantuya of Mongolian Women's Association to discuss overall issues concerning a new Sub-Committee on women, the delegation visited Vice

Governor O.Batjargal of Uvurkhangai Province and exchanged views on how to expand NEAR activities in a sustainable manner.



사무국 대표 이시원 과장에게 몽골전통악기인 "마두금"을 전달하는 바트자르갈 부지사 Governor O. Batjargal presents the Mongolian traditional instrument "Morin Khuur," or Horse head fiddle to Director Shi-won Lee of NEAR Secretariat

#### NEAR 사무국 대표단 하얼삔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참석

이해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NEAR 사무국 대표단이 6월 14일부터 16 일까지 헤이롱지앙성을 방문하여 제20회 하얼삔 국제경제무역상담회 개



막식에 참석하고 헤이롱지 앙성 쑨 용뿌어 부성장을 만나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 해 논의했다.에 관해 논의 했다.

## Secretariat Delegation Paid an Official Visit to Heilonjiang

NEAR Secretariat delegation led by Secretary General Lee paid an official visit to Heilonjiang on 14-19 June. After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sup>th</sup> Int'l Economic & Trade Fair held in Harbin City, the delegation met with Vice Governor Sun Yongbo to share view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이해두 사무총장, 헤이롱지앙성 쑨 용뿌어 부성장과 면담 Secretary General Lee met with Vice Governor Sun Yongbo, Heilonjiang Province

#### 사무국 대표단 러시아 방문하여 회원단체 지원활동 펼쳐

구연길 NEAR사무국장 일행은 부랴티야공화국에서 개최된 바이칼국제 경제포럼에 참가하고, 이어 사하공화국(야쿠치아)을 예방, 외무부 장관과 간담을 을 통해 회원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Secretariat Delegation Visited Russia to Support NEAR Members**

NEAR Secretariat Delegation led by Executive Director Yeon-Gil Koo visited Russia to participate in the Baikal Economic Forum held in the



Republic of Buryatia and met with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to discuss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NEAR members.

사하공화국 외무부 장관 사무국 사절단 접견 Foreign Minister of the a Republic (Yakutia) met with the Secretariat delegation

#### 회원자치단체소식 NEAR Member News

#### 후난성 – 중국

#### 2009 중국 후난성 국제 관광축제

2009 중국 후난성 국제 관광축제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후난성의 성도인 츠앙사(長沙)시와 성(省)내 각 시(市)와 주(州)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개막식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속의 섬 쥐쯔저우터우(橘子洲頭)에서 열림 예정이다.

이번 관광축제는 "아름답고 즐거운 후난"이라는 주제로 개막식, 후난 관광 상품 소개 및 관광 투자유치회, 후난요리 문화제, 베스트 관광 코스 시찰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개최도시인 츠앙사에서는



제4회 츠앙쭈탄(長株潭) 생태 레저관광 축제가 열리며, 후난성 곳곳에 특색 있는 관광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 **Hunan Province - China**

# Charming and exciting Hunan International Tourism Festival is waiting for you! Welcome to Hunan!

The annual tourism carnival- Hunan International Tourism Festival, 2009 is set to be unveiled from Sept. 12 to Sept. 18.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ix-day event is expected to be staged on the Orange Islet Juzizhoutou -- the largest islet standing in the inland river through urban area across the world and the renowned scenic spot in Changsha- the capital city of Hunan Province.

Inheriting the theme of "Beautiful Land, Merry Hunan", this Festival will see series of activities such as the Promotion of Hunan Tourism Products & Business Attraction for Tourism Projects, Hunan Food Cultural Festival, Investigation on Hunan Selected Tourism Routes and so on besides the opening ceremony. In addition, the 4th Chang-Zhu-Tan Recreation & Ecotourism Festival will be held in Changsha-- the host city of this event. Diverse and colorful activities with distinct features are planned to be carried out in cities and prefectures across the Province

개막식이 열리는 후난성 쥐쯔저우터우 Islet Juzizhoutou, where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staged

#### 교토부 - 일본

#### 간사이 지역의 동해 관문을 꿈꾸며

교토부에 위치한 마이즈루항은 동북아 및 세계의 허브 항구인 부산항. 중국 동북3성의 관문인 따리엔 및 청따오항과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 구로서, 내년 봄부터 5만 톤 급의 콘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마이즈 루 국제 부두(미즈나기 부두)'가 문을 연다. 교토부는 또한 인근 지역을 특정산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개발, 물류・배송 거점을 집적시켜 교토 마 이즈루항을 중심으로 교토부 북부 지역의 산업진흥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토부는 마이즈루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니고 있는 지리 적 우위성을 활용, 국제 부두 개장을 계기로 사람 · 물건 · 정보가 교류하

는 간사이 경제권의 환동해 관문으로 거 듭날 것을 꿈꾸며. 새로운 물류 루트의 개척과 국제 페리 유 치 등에도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 **Kyoto Prefecture - Japan**

#### Dreaming to Become Kansai's Gateway to the East Sea (Sea of Japan)

In the coming spring, next year, a multipurpose international terminal will open at the Port of Kyoto-Maizuru, which has regular shipping routes to the port of Busan, the hub harbor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nd to Dalian and Qingdao, both of which are gateways to the three provinces in northeastern China. The Maizuru International Terminal will be able to dock container ships of the 50,000-ton class. Also, Kyoto is planning to promote development of industries in the northern area by forming a specialized industrial cluster centering around the Kyoto-Maizuru Port as a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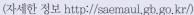
Furthermore, taking its geographical advantage in Northeast Asia, Kyoto aspires to further strengthen the position of Maizuru as a gateway to the Kansai economic bloc on the East Sea (Sea of Japan), and is searching for new logistics routes and international ferries.

마이즈루(Maizuru, 京都舞鶴) 국제부두 완성도 Airview of Maizuru International Terminal

#### 경상북도 - 한국

#### 경북,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로 새로운 희망을 전한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 은 대한민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창한 사회개혁운동으로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고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 국민들에게는 건국 이후 최고의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구촌 저개발국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해 줄 운동으로 세계 74개국 4만여 명이 배워가고, 13개국 현지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등 UN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시작 40년을 맞아 새마을 운동을 재조명하고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오는 9월 19일~23일 "새마을, 내일을 만드는 희망"을 주제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희망새마을존, 글로벌존, 새마을명품관, 녹색문화관 등 다양한 프 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유무형 자산을 전파할 예정이다.





#### Gyeongsangbuk-do Province - Korea

#### Korea Saemaul Expo Delivers New Hope to the World

Based on the spirit of diligence, self-reliance and cooperation, the Saemaul Movement or the New Village Movement is a social reform movement launched by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to break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and modernize and the rural South Korean economy. It is remembered among Koreans as the best achieve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Until recently, the movement has been learned by over 40,000 people from 74 countries as a solution to poverty and famine in the underdeveloped world and implemented by 13 countries, gaining attention from the UN and the world. Now commemorating its 40th anniversary, Gyeongsangbuk-do is shedding new light on the movement by holding "Korea Saemaul Expo" on 19-23 September under the theme of "Saemaul, a Hope that Makes Tomorrow" in the city of Gumi. Co-hosted by the Korea Samaul Undong Center, it will spread the spirit of Samaul as well as its tangible -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to the world through various programs and exhibitions, including "Hope Samaul Zone," "Global Zone," "Saemaul Luxury Goods Hall," and "Green Culture Hall" among many others.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예방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관용 경북도지사, 반기문 UN사무총장, 박몽룡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

Governor KIM Kwan Yong of Gyeongsangbuk-do Province met with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th a mission to globalize the Samaul Movement (from left: Governor KIM Kwan Yong,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and Chairman PARK Mong Ryong of the Gyeongsangbuk-do Samaul Center)

#### 대전광역시 - 한국

#### 세계 첨단기술거래를 실현하는 제6회 WTA 대전하이 테크 페어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는 오는 10월 12일~16일까지(5일간) 대전무역 전시관에서 제6회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Hi-tech Fair)를 개최한다. WTA 하이테크 페어는 WTA 회원(33개국 66개 회원)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 제적 기술박람회이다. WTA(세계과학도시연합)는 과학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



영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 대전광역시의 주도로 결성 한 국제기구로서 대전광역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 **Daejeon Metropolitan City - Korea**

#### The 6th WTA Daejeon Hi-Tech Fair Realizes High-Technology Transfer and International Trade

Daejeon Metropolitan City (Mayor PARK Seoung Hyo) is hosting the 6th WTA Daejeon Hi-Tech Fair on 12-16 October at Kotra Trade Exhibition Center (KOTREX), Daejeon. WTA Hi-Tech Fair is an international exhibition in which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high-tech industries from cit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WTA members (66 members from 33 countries) exhibit their technologies and high-tech products to foste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WTA) is a multilateral cooperative organization established in September, 1998 on the initiative of Daejeon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and a shared prosperity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science cities around the world and to contribute further to the happiness and well-being of human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3. 10. 28 중국 허훼이시에서 개최된 제3회 WTA 테크노마트 개막식 (2009부터 테크노마트는 WTA 하이테크 페어'로 명칭 변경) The opening ceremony of the 3<sup>rd</sup> WTA Techno-Mart held on 28 October 2003 in Hefei City, China (The former "WTA Techno-Mart" has been redesigned into "WTA Hi-tech Fair" since 2009)

#### 울랑바타르시 - 몽골

#### 재 몽골 한인회 주최 서울 바하합창단 공연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5일 몽골 필하모니 공연장에서는 김명엽 교수의 지휘로 서울 바하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재 몽골한인회, 울랑바토르 대학, "신오를락"센터의 공동주최로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허성조 한인회장, 주 몽골 한국대사관 정일 대사와 공관원들, 교민, 몽골인 등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모처럼만에 펼쳐진 수준 높은 공연을 만끽했다. 더욱이 본 공연에는 몽골 가수도 출연해 열기를 더했다.

#### **Ulaanbaatar City - Mongolia**

# S. Korea-Mongolia Choir Concert Touched Mongolian Souls

The Seoul Bach Choir conducted by KIM Myeong Yeop, Professor of Church Music at Yonsei Univ., Korea performed on July 25 and 26 at the State Philharmonic Hall in Mongolia to honor the establishment of Mongolian and South Korean relations. Organized jointly by the Korean People Association in Mongolia (KPAM), the Univ. of Ulaanbaatar and the New Art Center, the event was joined by more than 300 audiences, including Chairman HUR Seong Jo of KPAM, Korean Ambassador JEONG II in Mongolia, Korean nationals and Mongolian citizens. Mongolian opera singers also participated in the concert, including D. Erdenejargal and D. Otgonjargal, who are the young opera singers of the State Opera and Ballet Theater.

#### 부랴티야 공화국 - 러시아

#### 바이칼 경제포럼 성황리에 마쳐



7월 10일 바이칼관광특구지역 프레젠테이션 현장 Presentation on "Baikal" special economic zone of tourism

지난 7월 8일~10일 "세계경 제발전 속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역할"이란 주제 로 개최된 바이칼 경제포럼이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각국에 서 모인 경제인 약 980명이 참석한가운데 러시아 부랴티 야공화국 울란우데 시에서 성 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제포럼에는 S.M.

미로노프 연방상원의장이 이끄는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사절단, D.F. 메젠 쩨프 의장을 선두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사업협의회, A.V. 크바쉰 시베리 아연방관구 대통령권한대행, V.V. 나가비쯔인 부랴티야공화국 대통령, 경 제특별구역운영 연방사무소 A.A. 알파토프 소장 등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부서 및 의회를 포함한 39개 국가기관 고위대표들과 49개 외국 정부단체 및 기업이 참가했다. 외국 기업은 주로 일본, 한국, 중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 Republic of Buryatia - Russia

#### **Baikal Economic Forum**

The Baikal Economic Forum took place on the subject of "The Role of Siberia and the Far East in Global Development" on 8-10 July in Ulan-Ude City, the Republic of Buryatia with more than 980 businessmen from around the world. This forum was joined by Russian senior officials from 39 national institutions and 49 foreign government and business delegations, including the Russian Federal(RF) Council delegates led by Chairman S. M. Mironov,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Business Council led by President D. F. Mezenchev, Presidential Plenipotentiary Representative A. V. Kvashin to the Siberian Federal District of the



RF, President V. V. Nagovichyn of Buryatia and President A. A. Alpatov of the Federal Agency for Manage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Participating major foreign companies were mostly from China, Japan and Korea while Germany stood out among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its large delegation.

바이칼 경제포럼 개회식 (왼쪽부터: 상하이협력기구사업협의회 의장 겸 현 이르쿠츠크주 D.F. 메젠쩨프 지사, 러시아연방 S.M. 미로노프 상원의원, 부랴티야공화국 V.V. 나고비쯔인 대통령, 러시아연방 A.L. 쿠드린 재정부 장관)

Opening ceremony of the Baikal Economic Forum (from left: President D. F. Mezenchev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Business Council; Chairman S. M. Mironov of the Russian Federal Council; President V. V. Nagovichyn of the Republic of Buryatia; and RF Finance Minister A.L. Kud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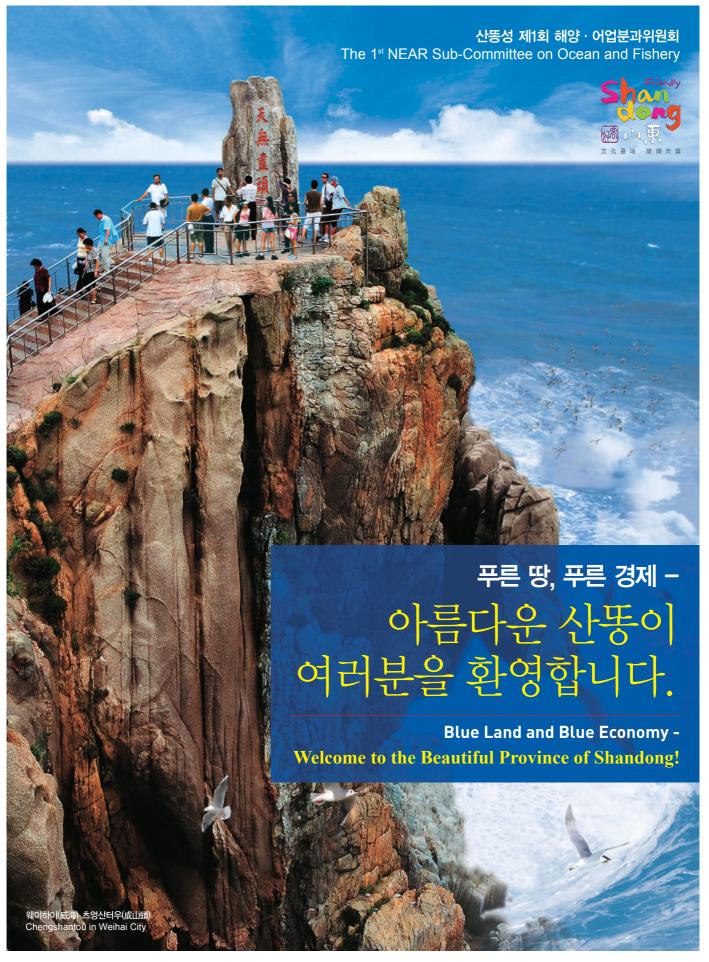
# 11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 회원단체 행사일정

자치단체명	행 사 명	기 간	장 소	분 야	대 상	연 락 처
후난성 (중국)	후난성 국제 관광축제 (China Hunan Int'l Tourism Festival 2009)	9/12~9/18	쥐쯔저우터우 Juzizhoutou 橘子洲頭	관광	전체	후난성 외사판공실 T. +86-731-2218245 F. +86-731-2688455
효고현 (일본)	국제프론티어산업 멧세	9/3~9/4	효고현	산업 전시	전체	효고현 과학진흥과 T. +81-78-362-3316 F. +81-78-362-4466
교토부 (일본)	제6회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관한 국제포럼	10/4~10/6	국립교토 국제회관	과학기술	전체	NPO법인 STS포럼 사무국 T. +81-3-3519-3351 http://www.stsforum.org
부산광역시 (한국)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ENTECH 2009)	9/16~9/19	벡스코	환경에너지	전체	벡스코전시팀 T. +82-51-888-4757 http://www.entechkorea.net/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14 <sup>th</sup> Pusan Int I Film Festival)	10/8~10/16	해운대, 남포동	영상	전체	(사)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T. +82-51-747-3010 http://www.piff.org/intro/default.asp
광주광역시 (한국)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09 (Gwangju Design Biennale 2009)	9/18~11/4	김대중 컨벤션센터	문화 예술	전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T. +82-62-608-4114 http://gb.or.kr/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l Sori Festival)	9/23~9/27	전주	문화 예술	전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T. +82-63-232-8398 F. +82-63-232-8399 http://www.sorifestival.com/
대전광역시 (한국)	2009 국제우주대회 (60 <sup>th</sup> Int'l Astronautical Congress)	10/12~10/16	대전컨벤션센터	항공우주	전체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 T. +82-42-539-2300 F. +82-42-539-2309 http://www.jac2009.kr/
충청북도 (한국)	200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Cheongju Int'l Craft Biennale 2009)	9/23~11/1	청주시	문화예술	전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 T. +82-43-277-2501~3 F. +82-43-277-2610 http://www.cheongjubiennale.or.kr/
경상북도 (한국)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9/19~9/23	구미시	문화	전체	새마을 박람회 TF팀 T. +82-53-950-3935 F. +82-53-950-2249
제주특별자 치도 (한국)	세계델픽대회 (The III Delphic Games 2009)	9/9~9/15	제주도	문화예술	전체	제3회제주델픽대회조직위 T. +82-2-3789-4005~6 F. +82-2-3789-4007 http://delphic2009.com/
크라스노야 르스크변경 주 (러시아)	17차 인포콤-2009와 연계한 전문정보기술 전시회	10/22~10/24	크라스 노야르스크시	정보기술	전체	크라스노야르스카야 아르마르카 T. +7-3912-28-8402 http://www.krasfair.ru
알타이변경 주 (러시아)	15회 전문농업산업박람회	10/27~10/30	바르나울시	농업	전체	알타이스카야 야르마르카 T. +7-3852-65-8844, 63-3309, 63-5634, 63-9762, 63-5695 F. +7-3852-65-8844 E-mail: altfair@altfair.ru
연해변경주 (러시아)	제3회 국제어업인 대회	9/1~9/4	블라디보스톡시	수산업	전체	연해주 어업국 T. +7-4232-49-3502 E-mail: fishing@primorsky.ru
톰스크주 (러시아)	제7회 혁신포럼	10월 말	톰스크	기술혁신	전체	톰스크 주 국제지역 외교부 T. +7-3822-51-1199

#### ■ NEAR Member Events Schedule

Member	Event	Date	Venue	Field	Contact
Hunan Province (China)	China Hunan Int'l Tourism Festival 2009)	12~18 September	Juzizhoutou	Tourism	Hunan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T. +86-731-2218245 F. +86-731-2688455
Hyogo Prefecture (Japan)	Prefecture Industrial Fair 2009 Kobe		Hyogo Prefecture	Industrial Exhibition	Dept. of Science Promotion,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T. +81-78-362-3316 F. +81-78-362-4466
Kyoto Prefecture (Japan)	The 6th Annual Meet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	4~6 October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Science &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 (NPO) T. +81-3-3519-3351 http://www.stsforum.org
Busan	ENTECH 2009	16~19 September	BEXCO	Environment & Energy	BEXCO Exhibition Team T. +82-51-888-4757 http://www.entechkorea.net/
Metropolitan City (Korea)	The 14 <sup>th</sup> Pusan Int'l Film Festival	8~16 October	Haeundae, Nampo-dong	Film	PIFF Organizing Committee T. +82-51-747-3010 http://www.piff.org/intro/default.asp
Gwangju	Gwangju Design Biennale 2009	18 September~4 November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Culture & Art	Gwangju Biennale Foundation T. +82-62-608-4114 http://gb.or.kr/
Metropolitan City (Korea)	Jeonju Int'l Sori Festival	23~27 September	Jeonju	Culture & Art	Jeonju Int'l Sori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T. +82-63-232-8398 F. +82-63-232-8399 http://www.sorifestival.com/
Deajeon Metropolitan City (Korea)	The 60 <sup>th</sup> Int'l Astronautical Congress	12~16 October	Daejeon Convention Center	Aerospace	2009 Astronautical Congress Organizing Committee T. +82-42-539-2300 F. +82-42-539-2309 http://www.iac2009.kr/
Chungcheon gbuk-do Province (Korea)	Cheongju Int'l Craft Biennale 2009	23 September~1 November	Cheongju City	Culture & Art	Cheongju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T. +82-43-277-2501~3 F. +82-43-277-2610 http://www.cheongjubiennale.or.kr/
Gyeongsang buk-do Province (Korea)	Korea Saemaul Expo	19~23 September	Gumi City	Culture	Saemaul Expo TF Team T. +82-53-950-3935 F. +82-53-950-2249
Jeju Special Governing Province (Korea)	The III Delphic Games 2009	9~15 September	Jejudo Island	Culture & Art	The 3 <sup>rd</sup> Delphic Games Organizing Committee T. +82-2-3789-4005~6 F. +82-2-3789-4007 http://delphic2009.com/
Krasnoyarsk Territory (Russia)	Info. Technology Exhibition Connected to the 17 <sup>th</sup> Infocom-2009	22~24 October	Krasnoyarsk City	Info. & Tech.	Krasnoyarskaya Yarmarka T. +7-3912-28-8402 http://www.krasfair.ru
Altai Territory (Russia)	The 15 <sup>th</sup> Profess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27~30 October	Barnaul City	Agriculture	Altaiskaya Yarmarka T. +7-3852-65-8844, 63-3309, 63-5634, 63- 9762, 63-5695 F. +7-3852-65-8844 E-mail: altfair@altfair.ru
Primorsky Territory (Russia)	The 3 <sup>rd</sup> Int'l Congress of Fishers	1~4 September	Vladivostok	Fishery	The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T. +7-4232-49-3502 E-mail: fishing@primorsky.ru
Tomsk Region (Russia)	The 7 <sup>th</sup> Innovation Forum	End of October (TBC)	Tomsk	Technology Innovation	Dept. of Foreign Affairs, Tomsk Regional Gov. T. +7-3822-51-1199





1. 산통성 우수 해산물 1-1. 지닝(濟寧) 웨이산후(微山湖) 민물게, 1-2. 자삼 (刺參: 해삼의 일종), 1-3. 전복, 1-4. 성게 Quality marine products of Shandong 1-1. freshwater crab from Weishanhu, Jining, 1-2. sea cucumber, 1-3. abalone, 1-4. and sea urchin 2. 다시마 양식장 Kelp farming 3. 웨이하이 초엉산타우 일출 Sunrise at Chengshantou in Weihai City 4. 수산물가공품 Processed marine products

#### 해양 · 어업분과위원회

지난 NEAR 제7차 총회에서 해양어업분과위원회를 유치한 산동성은 그 동안의 적극적인 준비를 거쳐 2009년 10월 9일부 터 12일까지 옌타이(煙臺)시에서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창설 회의와 해양·어업관리 및 현대어업발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 입니다. 산동성은 NEAR 회원자치단체에서 해양·어업분과위 원회에 가입하고 대표단을 구성하여 행사에 참석, 동북아지역 해양어업의 발전을 촉진해 주시기를 정중히 청하는 바입니다.

#### 해양관리 및 현대어업 발전포럼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창설회의 기간에 우리는 해양관리 및 현대 어업 발전 포럼을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해양어업전문가, 기업인, 그리고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과해양관리, 해양경제, 해양목장, 어업생태보호, 친환경 양식모델과 어업관리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회의기간에 "산동성 명품 수산물 전시회"를 개최하여어류, 새우류, 조개류, 해조류 등 산동성의 바다 진미를 선보이고자합니다.

#### 산똥성의 해양 · 어업을 소개합니다.

산동성은 중국의 어업대성(漁業大省)으로서 3,100여 킬로미터의 해안선, 연안의 300여 개의 섬, 70여 곳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역면적과 육지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산동은 중국북방지역 중 담수(淡水)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담수면적이약 27만ha에 달합니다.

산똥은 양식. 수산물 가공. 조선업 등이 발달했으며 수산물의

#### The Sub-Committee on Ocean and Fishery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to appoint Shandong Province as the coordinator of the Sub-Committee on Ocean and Fishery, Shandong Province is hosting the "Inauguration Meeting of the NEAR Sub-Committee on Ocean and Fishery and the Forum on Oce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Fishery" on 9-12 October 2009 in Yantai City. We cordially invite you to the membership of the newly established body and to the gathering aimed at promoting ocean fishery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 Forum on Oce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Fishery

The Sub-Committee Meeting will be held back-to-back with the Forum on Oce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Fishery. Various issues such as ocean management, - economy, - farming, protection of ocean ecology, environment-friendly farming models and fishery management will be discussed among ocean experts, business leaders and NEAR members. Also, "Shandong High-Quality Marine Products Exhibition" will provide a wonderful chance to experience fishes, shrimps, clams, sea vegetables and other delicacies of Shandong Ocean.

####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Fishery of Shandong

Shandong is one of the largest fishery provinces in China with its 3,100 km-long coastline, over 300 offshore islands and more than 70 harbors, and the sea area is almost the same with the size of its land. Also, with approx. 27 hectare of fresh water, Shandong is richer in fresh water resources among other northern regions of China.

Having well-developed farming, marine product processing and shipbuilding



5. 옌타이(煙臺) 해변 풍경 Landscape of Yantai city 6. 웨이하이 롱청 백조호수(天鵝湖) Rongcheng Swan Lake, Weihai 7. 청따오(靑島) 올림픽 요트기지 Qingdao Olympic Yacht Base 8. 웨이하이 롱이엔(龍眼) 항구 전경 View of Longyan Port, Weihai

총생산량, 가공량, 무역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의 수산물 가공기지로서 연간 가공규모가 600만 톤, 가공기업이 2,000개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선도유지, 냉동처리, 식품가공, 해양약품, 어분(魚粉, fish meal), 어죽, 해조식품, 약품보건, 원료가공 등 9대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어선을 생산하는 기업이 50여 개에 달하며 선박제조를 위한 3,000톤 급이상의 대규모 기계화 선반을 20개 이상 보유하여 7,000톤 이하의 각종 조업용 선박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산동성은 중국 해양·어업 관련 연구·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관 기관이 56개, 관련 인원이 1만여 명에 달하는 등, 우수한 해양·어업 과학기술 기구와 과학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동성은 해양경제와 내륙경제의 발전,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호, 그리고 해양자원의 국내개발과 국제협력간의 조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개발과 보호를 적절히 안배하여 해양·어업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에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많은 유적과 문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과 바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민간의 고유한 풍속이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경치와 온화한 기후를 갖춘 활력이 넘치는 해변도시 옌타이는 '중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귀빈 여러분께서 산동성을 방문하셔서 해양·어업 발전의 대계를 함께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 해양·어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방문하시는 여러분께서 산똥의 매력을 발견하시고,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산똥성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industries, Shandong ranks 1st in the total volume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trade of marine products. As the biggest marine products processing base in China, it processes 6 million tons every year with 2,000 companies. Also, it is advanced in 9 industries, including freshness maintenance, refrigeration, food processing, marine medicine, fish meal, fish mince, sea vegetable food, health medicine and raw material processing. There are more than 50 fishing boat manufacturers and all types of ships and floating constructions less than 7,000 tons in weight are produced in more than 20 large-scale ship building docks.

Shandong is the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of Chinese ocean science and fishery with 56 outstanding science & technology institutions and more than 10,000 researchers in the field. The province has promote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ocean fishery economy by balancing between development of ocean - and inland economy;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and domest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ndong ha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ic sites, widely known for its outstanding scenery of mountains and sea, long-standing history and culture and unique folk customs. In particular, with its elegant landscapes, mild weather and unrivaled vigor, the beautiful "beach-city" Yantai is praised as one of the most attractive citie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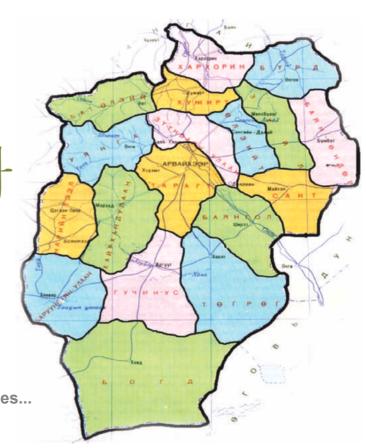
We wholeheartedly hope that honorable NEAR members could visit our province to discuss the grea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cean and fishery in Northeast Asia!

We wish all visitors may fully discover and enjoy the charm of our province! Welcome to Shandong!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 새로운 사업기회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부르항가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Beautiful nature, Ancient history, new opportunities and business opportunities... Uvurkhangai province awaits you!





우브르항가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부르항가이 아이막(도)은 19개의 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63,500 ㎢, 인구는 약 11만 명입니다. 우부르항가이의 주요 도시인 Arvaikheer (아르웨해르)는 몽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부르항가이는 도로와 항공로 등 광범위한 운송체계로 인해 "서부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 구리, 석탄 등 자연자원이 풍부할뿐 아니라 주요 농업 생산지이자 오랜 산업기지 중 하나이며, 매력적인 관광지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막의 대표적 명소인 하라호름(Khara Khorum)은 고대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 아이막의 힘을 체험해 보십시오. 중앙아시아의 광업 및 관광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우부르항가이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돌람더르쯔 덕터흐수릉** 우부르항가이 지사

Welcome to Uvurkhangai province!!

The size of land of Uvurkhangai province is more than 63.5 thousand square kilometers and the population is approximately 110 thousand in 19 sums (towns). The capital city of the province is Arvaikheer is becoming one of Mongolian fast developing cities. Uvurkhangai province has been well known as "thoroughfares to west provinces" having a comprehensive transport system linking roadway and airway.

Uvurkhangai province boasts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such as gold, copper, and coal eg. It is one of the major agricultural producing lands and old industrial bases having attractive tourist sites. The ancient Capital of Mongolian Empire Khara- Khorum city is in our province, which attracts foreign tourists the most.

I invite you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is region for yourself. Embrace the opportunities and potential of Uvurkhangai Province, emerging as the mining and tourism industry hub of Central Asia.

**Dulamdorj TOGTOKHSUREN** Governor of Uvurkhangai Province



- 1. 해발 2500m인 후이스잉 나이망 호수 Huis eight lakes /2500 m above the sea level/
- 2. 탐츠바위 Tamch Rock
- 3. 2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오르홍 폭포수 Orkhon water fall /cascades down from height of 24m/



#### 자연과 지리 NATURE and GEOGRAPHY

우부르항가이 아이막의 면적은 63,500 km²로, 남북길이가 385km, 동서길이는 310km다. 아이막의 중심부는 울랑바타르시에서 420km 떨어져 있으며, 몽골의 지리적 중앙인 우브르호쇼트(Uvurkhushuut)는 우부르항가이 아이막의 부르드솜에 위치해 있다.

우부르항가이에 가면 기막히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Khangai 산맥이 뻗어 있으며 중부는 스텝(초원)지대가, 남부는 알타이산맥 및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다.

우부르항가이에는 해발 2,500~3,590m의 고산이 많다. 대표적인 절경은 24미터 높이의 오르홍 폭포, 해발 2500m의 후이스잉 나이망 호수, 탐츠 바위 등이며, 아르웨해르, 덜러더에, 샤기, 헝거르, 고칭 등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다.

또한 특히 항가이 지역은 사슴, 영양, 여우, 늑대, 곰 등 희귀 야생동물들이 풍부하게 서식 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 연구에 의하면 우부르항가이에는 4개의 금광이 있으며, 9종류의 희귀 광물, 4종류의 유색 및 혼합광물, 2종류의 철, 4종류의 화석연료가 매장되어 있으며, 3곳의 온천지가 있다.

Uvurkhangai province emcompasses an area of 63.5 thousand square kilometers. It is 385 km from north to south, 310 km from west to east. The province center lies in a location of 420 km far from Ulaanbaatar city. Geographical "Center point" of Mongolia is located in Burd sum of Uvurkhangai province, which is named as "Uvurkhushuut".

The province has amazingly beautiful scenery of nature. The Khangai mountain range occupies the northern part of the territory. The middle part is covered with steppe and the southern part is rich in desert plants of Altai mountain range.

There are large mountains, which are at an altitude of 2,500-3,590 meters above sea level. Also it has wonderful places such as Orkhon water fall cascades down from height of 24 meters, Huis Eight lakes, which are 2,5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and Tamch Rock. There are also large steppes like Arvaikheer, Doloodoi, Shagj, Khongor, Guchin and Orkhon valley.

The Khangai regional part of the province is rich in wild animals such as deer, antelopes, foxes, wolves, bears and other rare animals.

According to the geological research, four gold mines, nine rare minerals, four colored and mixed minerals, two irons, three spas and four burning mineral resources were identified in the province.

#### 역사와 문화 HISTORY and CULTURE

우브르항가이에는 고대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관광 및 역사 유적지가 있다. 특히 예성주일 솜은 몽골 최초의 벅드항(종교지도자)이자 몽골 1대 왕이었던 운드르 게껭 자느바자르 (Undur Gegeen Zanabazar)의 고향이다. 1653년 설립된 투우흥 사원은 자느바자르가 여러 신들을 창조한 곳이다. 1680년, 자느바자르는 몽골의 독립을 상징하는 민족적 표장인 소용보 (Soyombo)를 만들었다.

몽골의 고대수도인 하라호름은 1586년 설립되었으며, 에르덴죠 사원은 1586년 아브타이 사인 칸의 주도하에 세워진 몽골 최초의 불교사원으로서 티베트 및 몽골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Uvurkhangai province is noted for its ancient culture, beautiful sightseeing and historical places. Esunzuil soum is motherland of Mongolian First Bogd Khaan (head of religion), famous statesman and great lama Undur Gegeen Zanabazar.

Tuvkhun monetary was established in 1653 and it was Zanabazar's creation place of the gods. In 1680, Zanabazar created the Soyombo script, which is the symbol of Mongolian independence.

Soyombo is the symbol of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Mongolian people. The golden Soyombo is placed on the left side of the Mongolian flag.

The Mongolian ancient capital city Khara-Khorum was established in 1586. Erdenezuu monestary was the first Buddist monastery erected on the initiative of Abtai Sain Khan in 1586.

#### 사회 및 경제적 상황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이 지역의 주요 경제는 농업이며, 낙타, 말, 소, 양, 염소 등 5종류의 가축 수가 총 350만 두에 달하여 몽골에서 2번째 규모다.

우부르항가이는 몽골 타 지역에 비해 채소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채소의 70~80%가 하 라호름에서 생산된다.

한편, 도시지역인 하라호름과 아르웨해르에

서 일고 있는 건설붐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바양텍(Bayanteeg)은 우부르항가이의 대표적 석탄채굴기업으로, 연간 150,000 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지명이름이기도 한 바양텍은 미래 우부르항가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지원과 함께 우부르항가이는 120개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의 금 채굴 회사가 있다.





- 카, 유럽대륙을 가로질러 형성된 동서교류의 광활한 무역: Ancient Silk Routes
- 5. 에르덴죠 수도원 Erdenezuu monastery
- 6. 몽골국기 왼쪽에 있는 노란색 문양이 소욤보(Soyombo) 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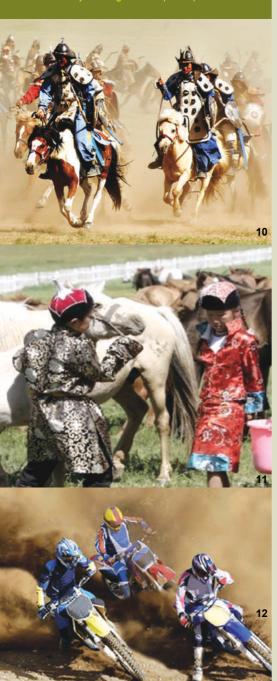
Soyombo is the symbol of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Mongolian people. The golden Soyombo is placed on the left side of the Mongolian flag

- 7. 고대 수도였던 하라호름 에 있는 108개의 사리탑과 거북이싱 108 stupa and Turtle statue of Ancient capital city
- 8. 우부르항가이의 가축 3.5 million livestock of Uvurkhanga





- 9. 바양텍 사의 채굴작업현장 Bayanteeg Mining company
- 10. 고대 몽골영웅 재현행사
  - **Ancient Mongolian Heroes Show**
- 11. 말젖을 짜기 전에는 반드시 새끼에게 먼저 젖을 몰리고 나서 젖을 짠다. 남자 아이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여자 아이는 젖을 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Horse milking
- **12.** 몽골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Motorcycle Mongolia Championship



Agriculture is the main economic sector with 3.5 million heads of five kinds of livestock, which is second in the country.

The province has rich experiences on vegetable production. About 70-80 percentages of the vegetable production comes from Khara Khorum soum.

Khara Khorum, Arvaikheer cities are having construction boom drawing keen attention from investors.

The province has a coal mining company which is named "Bayanteeg" after a district, which has capacity to produce 150 thousand tons of coal per year. Bayanteeg is going to be a regional center in the future.

With the support of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Uvurkhangai is holding 120 mining licenses and 6 gold mining companies work in the provinces.

#### 관광 TOURISM

우부르항가이는 관광자원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유적지와 함께 전통문화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은 승마, 야크 타기, 호수 및 강 낚시, 온천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외국 관광객의 약 90%가 고대 몽골의 수도인 하라호름을 방문한다고 한다. 몽골정부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 하라호름을 몽골의 관광모델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Uvurkhangai province has great potential of tourism development. It has beautiful nature and historical view sites. There are good chances to see traditional and cultural events in the provinces. Also tourists can ride horses, yaks, go for river and lake fishing and spring water treatment.

Statistics shows, approximately 90 percentage of foreign tourists come to see the ancient Mongolian capital city Khara-Khorum. The ancient capital city has been enlisted as "World Heritage" and the Mongolian government is going to develop Khara-Khorum as a tourist model city.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우790-834)

Tel: +82-54-223-2311~20, Fax: +82-54-223-2309

E-mail: aram\_yoo@hotmail.com

www.neargov.org

3F, Pohang TP, 601 Jligok-dong, Nam-gu, Pohang City,

Gyeongbuk, Republic of Korea, 790-834

Tel: +82-54-223-2311~20, Fax: +82-54-223-2309

E-mail: aram\_yoo@hotmail.com

www.neargov.org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